

광주시, 중기 미래차 전환 맞춤형 지원

지역특화 프로젝트 '레전드 50+' 참여기업 2월 7일까지 모집 3년간 국비 1340억 투입...스마트공장 고도화·컨설팅 등 지원

광주시가 지역 중소기업의 미래 자동차 산업 전환을 돕기 위해 다양한 맞춤형 지원에 나선다. 28일 광주시에 따르면 오는 2월 7일까지 중소벤처기업부와 함께 추진하는 미래차 등 지역특화 프로젝트 '레전드 50+' 참여기업을 모집한다. '레전드 50+'는 지역 고유의 특색과 강점을 살린 지역별 특화 프로젝트로, 광역자치단체가 기획하고 중기부가 정책 수단을 결합해 3년간 집중적으로 지원하는 대표적 지역 중소기업 육성정책이다. 광주시는 지난해 '미래차 전환 비즈니스 부스트

업(Business Boost Up) 프로젝트'와 '지역성장사다리 점프업(jump up) 프로젝트' 2개가 선정돼 2024년부터 3년간 매년 440억원씩 총 1340억원의 국비를 지원받는다. 프로젝트 지원 기업으로 선정되면 기업별 성장 전략에 따라 스마트공장 고도화, 수출바우처, 상담(컨설팅), 기술지원, 사업화, 제품 고급화, 정책자금 등을 지원받을 수 있다. '미래차 전환 프로젝트 분야' 신청자격은 모빌리티 전장 부품(연관 제품 및 기술 포함) 산업 영위

기업 또는 미래차 전환 준비기업이 대상이다. '지역성장사다리 프로젝트 분야'는 광주명품중소기업 졸업기업 가운데 모빌리티·의료·가전 등 주력 산업분야(연관 제품 및 기술 포함) 기업이 대상이다. 기업 신청이 마감되면 선정 평가 등을 거쳐 오는 2월 말에 참여기업을 확정할 예정이다. 자세한 내용은 광주시와 광주테크노파크 누리집(www.gjtp.or.kr)에서 확인할 수 있다. 오동교 광주시 미래산업총괄관은 "이번 지역특화 프로젝트는 미래차 전환 기업에게 맞춤형 지원을 하고, 미래 모빌리티 산업 생태계를 구축하는 데 큰 도움이 될 것"이라며 "특히 지역기업의 성장과 더불어 관계기업 유치, 신규 일자리 창출 등을 이끌어 낼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 /박진표 기자 lucky@kwangju.co.kr

광주관광공사, 통합고객관리시스템 개발 나선다



광주시관광공사와 마이스 산업 특화 IT기업인 ㈜마이스허브 관계자들이 지난 23일 김대중컨벤션센터에서 'MYSIS(마이시스)' 개발 및 마케팅을 위한 업무협약을 체결한 뒤 화이팅을 외치고 있다. <광주시관광공사 제공>

(주)마이스허브와 협약 체결
'마이시스' 개발·마케팅 추진

광주시관광공사가 전시컨벤션 업계 최초로 '통합고객관리시스템' 개발에 나선다. 광주시관광공사는 "지난 23일 마이스 산업 특화 IT기업인 ㈜마이스허브와 민·관협업 사업으로 국내 전시컨벤션 분야 첫 통합 고객관리시스템인 'MYSIS(마이시스)' 개발 및 마케팅을 위한 업무협약을 체결했다"고 밝혔다. '마이시스' 시스템은 기관에서 운영하는 각종 시

스템에 분산돼 있는 개인정보를 하나의 시스템으로 통합해 편리하고 안전하게 관리할 수 있는 정보시스템이다. 마이시스 시스템이 도입되면 전시장 및 회의실을 관리하는 '대관시스템'과 관광공사 주최 ACE Fair, 식품대전, 주류관광페스타 등 다양한 전시회의 홈페이지 등을 구축해 고객 정보 관리와 관리자 업무 효율화 등에 크게 기여할 것으로 기대되고 있다. 특히 전시컨벤션 분야보다 고객정보를 더 많이 수집하는 특성을 지닌 관광분야에서 '마이시스' 시스템의 활용도가 더 높을 것으로 보인다는 게 관광공사의 설명이다.

양 기관은 이번 협약으로 통합고객관리시스템 개발과 고도화를 위해 적극 협력하고, 향후 다양한 기관·기업 대상 이용 확대를 위한 마케팅 등 새로운 수익사업 모델로 발전시켜 간다는 구상이다. 광주시관광공사 김진강 사장은 "관광·마이스 산업은 데이터 기반 고객관리시스템의 중요성이 갈수록 높아지고 있다"면서 "이번에 개발된 통합고객관리 시스템이 광주관광공사의 디지털 경영체계 구축을 넘어 국내 관련 업계 정보화를 선도하는 모델로 성장할 수 있도록 민간 파트너와 협업하고, 고객 만족을 실현하는 관광·마이스 선도 기관으로 거듭나겠다"고 의지를 다졌다. /박진표 기자 lucky@

광주시, 2월부터 무료법률상담실 확대 운영

광주시는 "2월부터 생활 속 법률 도움이 필요한 시민을 위한 무료법률상담실을 확대 운영한다"고 28일 밝혔다. 무료법률상담실 확대는 법률상담에 대한 시민 수요가 꾸준히 증가하는 추세를 반영한 것이다. 광주시는 상담횟수를 주 2회에서 주 3회로 늘리

고, 상담시간대도 오전·오후로 나눠 다양한 상담 패턴에 적극 대응할 방침이다. 상담실은 매주 화·수요일 오후 2시부터 5시, 금요일 오전 9시부터 12시까지 문을 열고, 1명당 20분 정도 전화상담도 할 수 있다. 상담관은 광주지방변호사회 소속 변호사들로 구

성됐으며, 법률전문가로서 민사·형사 등 생활법률 전반에 걸쳐 도움을 줄 예정이다. 상담을 희망하는 시민은 법무담당관실(062-613-2773)로 전화해 예약하면 된다. 2011년 시작한 무료법률상담실은 최근 3년간 연 평균 687명이 이용하는 등 호응을 얻고 있으며, 광주시가 실시한 '2023년도 행정서비스 고객만족도 조사'에서도 이용자의 99.8%가 만족한다고 답했다. /박진표 기자 lucky@kwangju.co.kr

중대재해처벌 확대 실행

(2024년 1월 27일)

5인 이상 50인 미만 사업장
50억원 미만 건설 공사까지

처벌 대상 및 내용	사업주 및 경영책임자 등
· 사망 발생한 경우	· 1인 이상의 징역 또는 10억원 이하의 벌금
	· 부상 및 질병 발생한 경우: 7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억원 이하의 벌금
안전 및 보건 확보의무를 위반한 법인이나 기관	
· 사망 발생한 경우	· 50억원 이하의 벌금형
	· 부상 및 질병 발생한 경우: 10억원 이하의 벌금형

중대재해처벌법 50인 미만 사업장 확대 적용

광주시, 안전보건공단 등과
사각지대 발굴·교육·홍보 활동

광주시는 "지난 27일부터 중대재해처벌 등에 관한 법률이 상시근로자 50인 미만 사업장(5-49인)까지 확대 시행됨에 따라 관계기관과 협업해 적극 대응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중대재해처벌법은 2021년 공포(2021년 1월 26일 제정, 2022년 1월 27일 시행)됐으며, 50인 미만 사업장은 3년간 법 적용을 유예했다. 하지만 지난 26일자로 유예 시한이 종료됨에 따라 27일부터 5-49인 사업장도 법 적용을 받게 됐다는 게 광주시의 설명이다. 광주시는 법 적용을 받게 되는 소규모 사업자 중 상당수가 중대재해처벌법을 제대로 알지 못하고 있다는 판단에 따라 노동청-안전보건공단과 협업해 산업안전보건교육이 활동대상을 건설업은 물론 제조업까지 확대하고, 외국인근로자, 현장학습 고교생 등 산업재해 사각지대를 발굴·교육할 방침이다. 또 100인 이하 소규모 사업장에 대해 위험성

평가 컨설팅을 지원하고 산재예방을 위해 노력한 산업안전보건 우수기업에 대해서는 작업환경 개선 자금을 지원한다. 시는 이 밖에도 29일 오전 평동산단과 상가 밀집지역인 광주종합버스터미널 일대에서 중대재해처벌법 관련 홍보활동 등도 전개할 예정이다. 윤건열 광주시안전정책관은 "중대재해처벌법이 50인 미만 사업장까지 확대 시행되는 만큼 해당 사업주는 근로자 안전을 위한 안전·보건 의무 이행을 잘 준수해야 한다"며 "법 시행 전후로 홍보활동을 펼쳐 혼선이 최소화되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한편 중대재해처벌법은 중대재해 발생 때 무조건 사업주와 경영책임자 등이 처벌되는 것은 아니며 산업안전보건법 등 개별 법령 준수사항 및 안전보건관리체계 구축 등 사업주와 경영책임자 등의 안전 및 보건 확보 의무를 이행하면 처벌은 면하게 된다. 중대재해처벌법에 대한 자세한 내용은 중대재해처벌법 누리집(www.koshasafety.co.kr)에서 확인할 수 있다. /박진표 기자 lucky@kwangju.co.kr

전동킥보드·개인형 이동장치 관리 강화

광주시, 속도 하향·탑승 제한 등
주차구역 110개 추가 설치도

광주시는 "전동 킥보드를 비롯한 개인형 이동장치(PM, 전기를 동력으로 하는 1인용 교통수단) 관련 안전사고를 줄이기 위한 대책을 마련, 시행한다"고 28일 밝혔다. 광주시는 시교육청, 자치구와 협력해 지역 중·고등학교를 대상으로 '찾아가는 개인형 이동장치 청소년 안전교육'을 실시하며, 교육을 희망하는 학교는 광주시 등에 신청하면 된다. 또 개인형 이동장치 속도 하향조정, 면허 미소지자 탑승 제한, 안전수칙 안내 강화, 사고발생 시 탑승자 확인 및 보행대상 확대, 무단방치 이용자 패널티 부과 등을 추진한다. 이 밖에도 무단방치된 전동 킥보드를 빠르게

수거하기 위해 스마트폰을 이용해 킥보드 수거를 신청할 수 있는 '전동킥보드 민원 신고시스템(http://gipm.or.kr)'을 운영하고, 현장에서 스마트폰으로 사진을 찍어 위치와 사진을 신고 시스템에 올리면 즉시 수거할 수 있도록 했다. 전동 킥보드 주차구역도 확대한다. 광주시는 전동 킥보드 무단방치를 줄이기 위해 지난해부터 지철형 주변이나 아파트 밀집 지역 등 전역에 전동 킥보드 주차구역 조성사업을 추진하고 있으며, 지난해 북구지역에 50개의 환승주차구역을 설치했다. 올해 상반기까지 110개를 추가 설치한다. 인천형 광주시 교통정책과장은 "불법주차된 전동킥보드 증가로 인해 시민의 보행 불편 및 안전사고 우려가 커지고 있다"며 "무단방치된 전동킥보드는 적극 신고해줄길 바란다"고 당부했다. /박진표 기자 lucky@kwangju.co.kr

신협이 활짝 피었습니다

든든한 금융의 힘으로
따뜻한 협동의 힘으로
당신을 평생 어부바 하겠습니다

평생 어부바
신협

2023 사회복지공동모금회 복권기금사업

지역아동센터광주지원단 나답게 크는 아이 지원사업

“나답게 크는 아이 지원사업”

도움이 필요한 느린학습 아동이 '나답게' 성장할 수 있도록 현장교사가 맞춤형 프로그램을 제공합니다

아동 지원내용

1. **지원대상**
지역아동센터 이용 초등학생 중 인지·학습·정서·사회성 영역에서 도움이 필요한 아동
2. **전문인력(현장교사) 양성 및 파견**
느린학습자 특화교육을 통해 전문인력 양성
지역아동센터 1개소 당 1명의 현장교사가 파견
3. **아동 맞춤형 프로그램 지원**
 - ☑ 인지·학습 강화 프로그램(주 2회)
 - ☑ 정서·사회적응력 향상 프로그램(주 1회)

사업수행체계

지원	복권위원회, 사회복지공동모금회(복권기금)
관리·사업수행	남부대학교, 지역아동센터광주지원단
사업참여	지역아동센터 40개소, 참여아동 160명

아동지원체계

현장교사양성 > 지역아동센터파견 > 아동 프로그램지원 > 사회 구성원의 기본 역량 향상

본 사업은 복권위원회가 광주광역시로부터 위탁받아 운영하는 지역아동센터광주지원단에서 진행하는 사업으로 복권기금 지원으로 경제선지능아동(느린학습자)의 건강한 성장과 발달이라는 사회적 가치 제고를 지향하고 있습니다.